

# SUMMER

---

# BREEZE

---

# Jinho Hong



LOTTE CULTUREWORKS

CREZIA MUSIC & ARTISTS

여름밤,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악



SUMMER BREEZE

홍진호



8.16.SUN 롯데콘서트홀

조영훈,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  
SPECIAL GUEST 이나우 존노 고상지

주최 LOTTE CULTUREWORKS CREDIA MUSIC & ARTISTS

©YOUNGMINSTUDIO



## 첼리스트 홍진호

### Jinho Hong, Cello

나의 노래  
- 타고르

내 노래는 다정한 사람의 팔처럼  
당신의 주위를 감싸리라  
축복의 입맞춤으로  
당신의 입가에 가닿고  
당신이 혼자일 때 곁에 앉아 속삭이고  
군중 속에 있을 때는 울타리가 되리라

안녕하세요, 첼리스트 홍진호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들 평안하신가요?

불안과 위험이 초래한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들에 우리 모두가 혼란스럽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계속되어야 하듯 저는 음악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드리려 합니다.

어느덧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게 된 지 반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연애편지를 주고받듯이 애뜻함 가득한 보석같이 아름다운 음악들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특별히 이번 공연에는 슈퍼밴드를 통해 알게 된 피아니스트 이나우, 장르를 넘나드는 유려한 실력의 피아니스트 조영훈, 마치 현악기의 소리를 내듯 섬세하게 노래하는 존노, 국내 유일무이의 독보적인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 그리고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가 함께 무대를 풍성하게 꾸며줄 예정입니다.

궂은 날씨에 마스크까지 쓰고 어려운 길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의 미소는 보지 못하겠지만 한 분 한 분의 눈빛에 정성껏 인사드리겠습니다.

정화된 밤 되세요.  
홍진호 드림

## 피아니스트 이나우

### Nau Lee, Piano

‘엔니오 모리코네를 위하여’ 공연을 시작으로 진호 형과 무대를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고 즐겁습니다.

진호 형과 같이 대중 친화적인 클래식 음악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좋은 시너지를 내어 클래식 음악을 더욱 활성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

### Sangji Koh, Bandoneon

안녕하세요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입니다. 홍진호 씨의 단독 콘서트에 참여하게 되어 너무 기쁘요. 홍진호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첼로 선율로 피아졸라의 곡을 해석할 수 있다니 두근댁니다. 짧은 곡 안에서 강렬한 희비의 감정이 담겨 있는 음악. 여러분도 함께 느껴주세요.

## 테너 존노

### John Noh, Tenor

안녕하세요 존노입니다.) 이번에 감사하게도 첼리스트 홍진호씨의 게스트로서 썸머 브리즈 콘서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 클래식을 전공하고 음악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좀 더 대중적이고 마음을 울리는 음악과 퍼포먼스로 다가가자라는 마음으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 무대가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힐링시킬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 피아니스트 조영훈

### Younghoon Cho, Piano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조영훈입니다. 지치고 힘든 일상에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는 친구가 필요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드는 음악이 친구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 되세요!

CREEDIA

아르보 파트트	거울 속의 거울 홍진호, 이나우
에릭 사티	난 당신을 원해요 홍진호, 이나우, 김지윤
어쿠스틱 카페	라스트 카니발 홍진호, 이나우, 김지윤
윌리엄 볼컴	우아한 유령 래그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
마누엘 폰세	별 홍진호,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
루도비코 에우나우디	이 지오르니 홍진호, 이나우,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
엔니오 모리꼬네	가브리엘의 오보에 홍진호, 이나우,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

## INTERMISSION

마크 서머	줄리 오 홍진호
제이슨 므라즈 & 마이클 나터	I Won't Give Up 홍진호, 존노, 조영훈
레너드 번스타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OST 중 마리아 존노, 조영훈
데이비드 포스터, 캐롤 베이어, 알베르토 테스타 & 토니 레니스	The Prayer 홍진호, 존노, 조영훈,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
카를로스 가르델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된 날 홍진호,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
아스토르 피아졸라	아디오스 노니노 홍진호, 고상지, 조영훈,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
	신비한 푸가 홍진호, 고상지, 조영훈,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Arvo Pärt	Spiegel im Spiegel Jinho Hong, Nau Lee
Erik Satie	Je te veux Jinho Hong, Nau Lee, Jiyeon Kim
Acoustic Café	Last Carnival Jinho Hong, Nau Lee, Jiyeon Kim
William Bolcom	Graceful Ghost DITTO Chamber Orchestra
Manuel Ponce	Estrellita Jinho Hong, DITTO Chamber Orchestra
Ludovico Einaudi	I Giorni Jinho Hong, Nau Lee, DITTO Chamber Orchestra
Ennio Morricone	Gabriel's Oboe Jinho Hong, Nau Lee, DITTO Chamber Orchestra

## INTERMISSION

Mark Summer	Julie-O Jinho Hong
Jason Mraz & Michael Natter	I Won't Give Up Jinho Hong, John Noh, Younghoon Cho
Leonard Bernstein	<West Side Story> OST, Maria John Noh, Younghoon Cho
David Foster, Carole Bayer Sager, Alberto Testa and Tony Renis	The Prayer Jinho Hong, John Noh, Younghoon Cho, DITTO Chamber Orchestra
Carlos Gardel	El Dia Que Me Quieras Jinho Hong, DITTO Chamber Orchestra
Astor Piazzolla	Adios Nonino Jinho Hong, Sangji Koh, Younghoon Cho, DITTO Chamber Orchestra
	Fuga y Misterio Jinho Hong, Sangji Koh, Younghoon Cho, DITTO Chamber Orchestra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 PURIFY :

## 홍진호의 음악으로 정화된 밤

대중화는 영영 풀기 힘든 클래식 음악의 난제다. ‘클래식의 대중화’ 또는 ‘대중의 클래식화’라는 양 갈래 표현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따른다. 고급스런 선율, 콩쿠르의 높은 순위, 스타성만이 정답도 아니다. 첼리스트 홍진호는 그런 클래식 주변부를 둘러싼 백그라운드뮤직(BGM)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 둔, 집중력을 발휘해 자신만의 특별한 오션지 위를 흔들림 없이 걷는다. 우리는 이분법에 익숙하다. 클래식의 범주를 가를 때 특히 그렇다. 클래식의 범주를 최대한 넓게 잡아도 지난해 JTBC <슈퍼밴드>의 우승팀 ‘호피플라’에 속한 홍진호를 정통 클래식 코스로 밀어 넣지 않는 것이 클래식계 관행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첼리스트 홍진호의 이름을 가장 알린 플랫폼은 밴드 경연 대회 ‘슈퍼밴드’다. 주로 리듬 파트를 담당하는 드럼과 베이스 같은 악기 없이 홍진호와 함께 아일(보컬. 건반), 하현상(보컬.기타), 김영소(기타)로 이뤄진 호피플라는 첼리스트 홍진호가 아닌 연주자 홍진호의 결을 증명했다. 홍진호는 우연히 초등학교 5학년 때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3악장에서 첼로 소리를 처음 듣고 이 악기에 홀딱 반했다. 이후 서울예고와 서울대를 거쳐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 석사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이라는 ‘정통 클래식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는 <슈퍼밴드>에서 유연한 내공을 보여줬다. 여름 음악 축제 ‘썸머 브리즈(Summer Breeze)’의 하나로 8월 16일 서울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펼쳐지는 홍진호의 단독 콘서트의 세트리스트는 그래서 흥미롭다. ‘음악으로 정화된 밤(Purify)’이라는 콘셉트로 사람들의 지친 영혼을 정화시키는 레퍼토리를 들려주겠다고 예고했다. 아르보 파르트의 ‘거울 속의 거울’을 시작으로 고전과 현대 음악 그리고 팝 음악을 아우른다.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비롯 독주자로서 정체성을 고민해온 홍진호는 여러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슈퍼밴드> 출연 초반 당시 어떻게 해야 첼로 소리가 부각될지 강구했다. 욕심을 내야 사람들이 첼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그는 이번 콘서트에서 그걸 증명해 준다. 첼로 한 대로만 연주하는 음악은 마크 서머의 ‘줄리 오’가 유일하다. 나머지 곡들은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 그리고 <슈퍼밴드> 출신 밴드 ‘퍼플레인’ 피아니스트 이나우, <팬텀싱어 3> 준우승팀 ‘라비던스’의 테너 존노,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가 함께 선보인다. 이나우와는 이탈리아 출신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이 지오르니’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이탈리아 출신의 거장 작곡가인 엔니오 모리코네의 곡이자 영화 ‘미션’의 연주곡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들려준다. 존노와는 제이슨 므라즈의 ‘아이 윌트 기브 업(I won't give up)’을 선보이며 고상지와는 피아졸라의 ‘아디오스 노니노’와 ‘신비한 푸가’를 협연한다. 일차적으로 클래식에 근거를 뒀다 할 거 같은 첼리스트 콘서트에서 다중적 정체성을 갖는 이런 프로그램은 얼핏 연주자의 자리를 찾는데 곤란하게 여겨질 수 있다. 일찌감치 비클래식 연주자로 분류되면, 정통 클래식 요소로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슈퍼밴드를 통해 소통, 배려 등의 덕목을 키운 홍진호가 도달할 음악적 성취에 대해서는 애정 어린 감상이 필요하다. 클래식 음악의 여럿 힘 중 하나는 작곡가의 본질을 누구보다 더 깊게 알고 있는 연주자의 강력한 서사 장악력에서 나온다. 이미 공유된 음악에

서 미답의 진실을 끌어내는 발굴력. 그것이 홍진호가 평소 꿈꿔 온 네오 클래식의 문고리를 잡는 행위일 것이다. 최근 미국 빌보드 클래식 차트에서 ‘역주행 1위’로 새삼 주목받은 이루마를 비롯해 영국 작곡가 막스 리히터, 아이슬란드의 올라퍼 아르날즈가 네오 클래식의 카테고리 분류된다. 어떤 음악이 클래식, 즉 고전의 반열에 오를지 말지는 그 음악이 갖고 있는 완성도뿐 아니라 대중과 공감대 형성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연주자와 청자가 한 몸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서사를 만들어낼 때 오래된 음악은 새로워지고 끊임없이 생명력을 이어간다. “사람 목소리와 음역대가 가장 비슷한 악기는 첼로”라고 말할 수 있는 첼리스트는 수 백 명이 되겠지만, 홍진호와 같은 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첼리스트는 많지 않을 것이다. 덜 딱딱하지만 더 클래식적이고, 덜 정형화됐지만 더 참신하며, 덜 정통적이지만 더 유연한 목소리가 홍진호의 것이다. 그래서 감히 홍진호에게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우문을 접어두고 다급한 평가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 음악의 산들바람(Breeze)을 타는 일이다. 지금, 당신이 듣는 음악들은 현재의 음악이 아닌 미래의 음악이다. 공연장을 나서는 순간부터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니까. 네오 클래식은 그런 것이다.

글 | 이재훈(뉴시스 문화부 기자)



## 아르보 파트, 거울 속의 거울

### Arvo Pärt, Spiegel im Spiegel

묘한 곡이다. 피아노는 어루만지고 바이올린은 이어준다. 내면의 스위치를 켜고 조용히 들여다보는 풍경 같다.

아르보 파트의 70년대작 '거울속의 거울'이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혹은 피아노와 첼로로 연주된다. '틴티나블리(중소리를 연상시키는 음악)'로 대표되는 파트의 음악어법이 엇보이다. 느릿느릿한 진행 속에 펼쳐지는 악기들의 약음과 여백은 간결하고 고요하다. 음악에 몸을 맡겨보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음악과 정적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을 찾게 된다. 바이올린도 소박하게 빛나며 자신의 이야기를 긁는다. 두 곡이 카논처럼 번갈아가며 음형이 조금씩 변형된다. 맑은 파문이 퍼져나가며 텅 빈 충만을 느낄 수 있다.

## 에릭 사티, 난 당신을 원해요

### Erik Satie, Je te veux

에릭 사티가 앙리 파코리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다. 에로틱한 가사로 부르는 우울한 왈츠다. 사티가 샹송 가수 폴레트 다르티를 위해 작곡했다. 사티는 한때 다르티의 반주자로 활동했다. 가사는 두 개의 절구와 반복되는 후렴으로 이뤄져 있다. 사티는 다양한 편성으로 악보를 남겼다. 피아노와 성악을 위한 버전은 1903년 출판됐다. 나중에 사티는 피아노 독주 버전으로 편곡했는데, 두 번째 후렴과 2절 사이에 중간 섹션을 첨가했다. 1903년 이후 밀라노에서 이 곡의 선율이 유행했고 1925년 파리의 카바레에서 인기 레퍼토리가 된다. 이본 조르주가 1925년 이 곡을 녹음한 이후 레진 크레스팽, 니콜라이 게다, 제시 노먼, 안젤라 게오르규 등이 음반으로 남겼다.

## 어쿠스틱 카페, 라스트 카니발

### Acoustic Café, Last Carnival

불순물이 없는 가을의 대기 같은 바이올린 연주다. 뉴에이지 프로젝트 그룹 어쿠스틱 카페의 리더 츠루 노리히로는 성악을 배운 어머니에게 음악의 기초를 배우고 시인인 아버지에게는 문학의 영향을 받았다. 1989년 데뷔 음반 '달을 만든 남자'를 발표했는데, 이 앨범에 수록된 'Last Carnival'은 그 질은 서정성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달콤 씁사래한 왈츠로 전개되는 이 곡은 일본에서 '죽기 전 듣고 싶은 음악' 1위를 차지했을 만큼 명곡이다.

## 윌리엄 볼컴, 우아한 유령 래그

### William Bolcom, Graceful Ghost

윌리엄 볼컴의 '우아한 유령 래그'는 1970년 작곡한 '세 곡의 유령 래그' 모음곡 중 첫 번째 곡이다. 두 번째 곡은 '폴터가이스트(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꼬마 유령)', 세 번째 곡은 'Dream Shadows'다. '우아한 유령 래그'는 볼컴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회상하고 추모하기 위해 썼다. 초기 재즈 피아노 연주인 래그타임 스타일을 좋아했던 볼컴의 취향이 반영돼 있다. 도입부 없이 곧바로 시작하는 이 곡은 싱크페이션과 화성의 변화를 거쳐 다시 첫 주제로 돌아온다. 차분하고 우아한 곡의 흐름 사이에 잔잔한 슬픔이 깃들여 있다.

## 마누엘 폰세, 별

### Manuel Ponce, Estrellita

멕시코의 작곡가 마누엘 폰세(1886~1948)는 아홉 살 때 첫 작품을 쓴 천재였다. 10대 때는 교회의 합창 및 오르간 주자를 지냈고 이탈리아, 독일에서 유학하고 터키 등에서 공부했다. 귀국 후에는 피아니스트, 교수, 작곡가로 활동했다. 초기의 낭만주의부터 서서히 근대적인 그림자가 짙어지고, 민족적인 요소를 세련된 방법으로 다뤘다.

폰세의 대표작 '에스트렐리타'는 '작은 별'이란 뜻이다. 멕시코 가곡집 중에 들어있다. 사람들이 떠올리는 보통의 사랑 노래가 아니라 살아있는 향수, 노스텔지어의 의미를 담고 있다.

## 루도비코 에이나우디, 이 지오르니

### Ludovico Einaudi, I Giorni

모던하면서 미니멀리스트하면서도 자연의 서정을 잃지 않는 이탈리아 피아니스트 루도비코 에이나우디. 그의 작품 세계에 공감한 이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I Giorni'는 '나날들(The Days)'이란 뜻이다. 에이나우디가 아프리카 말리에 갔을 때 슬픈 노래를 들었는데 연인을 상실한 이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한다. 'I Giorni'는 그 노래에서 영감을 받아 쓴 작품이다. 에이나우디의 작풍이 그러하듯 피아노 선율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하다.

## 엔니오 모리꼬네, 가브리엘의 오보에

### Ennio Morricone, Gabriel's Oboe

올해 세상을 떠난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의 명곡이다. 영화 '미션'에서 선교사 가브리엘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먼 타지로 선교를 떠난다. 그곳에서 꺼내 연주하는 오보에는 선교사가 미지의 땅에서 원주민과 처음으로 친해지는 계기가 된다.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은 원주민의 마을에서, 가브리엘은 오보에로 소통에 성공한다. 듣는 이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선율이다.

이탈리아어로 가사를 붙여 사라 브라이트만이 부른 'Nella Fantasia'로도 널리 알려졌다.

## 마크 서머, 줄리 오

### Mark Summer, Julie-O

작곡가이자 첼리스트 마크 서머는 1958년 캘리포니아 엔시노에서 태어나 아홉 살 때 첼로를 시작했다. 10대 때는 밴드를 결성해 얼터너티브 록을 연주했다. 첼로를 전공하며 클리블랜드 음악원을 졸업한 후 작곡과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터틀 아일랜드 4중주단의 창단 멤버 첼리스트로 2015년까지 활약했다.

'줄리 오'는 첼로 한 대로 호흡 가득 채울 수 있는 곡이다. 활로 현을 긁는 것뿐 아니라 현을 뜯기도 하고 지판을 치기도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소리로 첼로의 매력에 빠지게 한다. 작곡가인 마크 서머는 연주자마다 저마다의 즉흥성을 발휘해야 하는 곡이라 했다. 누구의 연주를 듣더라도 항상 새롭고 흥미로운 작품이다.

## 제이슨 므라즈 & 마이클 나터, I Won't Give Up

### Jason Mraz & Michael Natter, I Won't Give Up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제이슨 므라즈와 마이클 나터가 작곡한 노래다. 2012년 제이슨 므라즈의 네 번째 스튜디오 앨범 'Love Is a Four Letter Word'에 수록됐다. 어쿠스틱 포크 블루스와 포크 팝 발라드 취향의 작품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꿈을 계속 지니고 있으라는 메시지를 들려준다. 직선적이고 영감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으로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서 따뜻한 반응을 얻었다.

## 레너드 번스타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마리아'

### Leonard Bernstein, <West Side Story> OST, Maria

1950년 말 뉴욕, 웨스트사이드 지역. 토착 건달 제트파와 푸에르토리코 이민자 건달 샤크파가 대립한다. 제트파 전 리더이자 폴란드계 미국인 토니와 샤크파 리더 베르나르도의 여동생 마리아의 사랑은 그 와중에도 피어난다. 스티븐 손드하임과 레너드 번스타인은 미국판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뉴욕에서 펼쳐냈다.

토니와 마리아는 서로 반한다. 토니는 자신 때문에 두 파벌 간 갈등이 악화될 것에 아랑곳 없이 '마리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마리아, 음악 같기도 하고 달콤한 기도 소리 같기도 한 그 이름 마리아'를 부른다.

## 데이비드 포스터, 캐롤 베이어, 알베르토 테스타 & 토니 레니스, The Prayer

### David Foster, Carole Bayer Sager, Alberto Testa and Tony Renis, The Prayer

애니메이션 '매직 스위트(Quest for Camelot)' 사운드트랙에 셀린 디옹의 솔로 버전으로 실렸고, 보첼리와 셀린 디옹의 영어와 이탈리아어 듀엣으로 유명해진 노래다.

작곡가인 데이비드 포스터가 "반복해서 연주하거나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지치지 않는 노래"라고 언급했듯이 아름다운 선율이 돋보인다. 이 곡의 가사는 캐롤 베이어가 썼다. 베이어는 이 곡이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며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소서'란 염원을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안전이 위협받는 요즘, 더욱 소중한 하게 다가오는 곡이다.

## 카를로스 가르델,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날

### Carlos Gardel, El Dia Que Me Quieras

알프레도 르 페라의 가사에 카를로스 가르델이 곡을 쓰고 부른 탱고 곡이다. 1935년 동명 영화에 사용됐다. 탱고 스탠더드가 되어 수없이 많은 아티스트들, 심지어 탱고 장르의 범주에 들지 않는 가수들도 이 곡을 커버했다.

스리 테너로 유명한 플라시도 도밍고는 1981년 '도밍고가 탱고를 노래하다' 앨범에 다른 탱고 스탠더드들과 나란히 이 곡을 수록했다. 도밍고에 이어 호세 카레라스,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 알프레도 크라우스 등이 이 노래를 불렀다.

## 아스토르 피아졸라, 아디오스 노니노

### Astor Piazzolla, Adios Nonino

피아졸라가 1959년 연주 여행 중 접한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작곡했다. 평소에 피아졸라의 아들은 할아버지를, 즉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아버지를 '노니노'라는 애칭으로 불렀다고 한다. 1954년 이미 작곡해 두었던 '노니노'라는 곡이 있었는데, 피아졸라가 그 곡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곡 제목을 '잘 가요, 노니노'라고 붙여 아버지에게 대한 애정과 슬픔을 담았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빌려 "잘 가, 할아버지"하면서 아버지에게 대한 추모를 표하는 이 곡은 아름다우면서도 가슴 한구석을 먹먹하게 만든다.

## 아스토르 피아졸라, 신비한 푸가

### Astor Piazzolla, Fuga y Misterio

'푸가와 신비'가 더 올바른 번역이지만 '신비한 푸가'라고도 일컬어진다. 피아졸라가 1968년 작곡한 탱고 오페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리아' 다섯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곡이다. E단조의 알레그로 주제로 시작해 전형적인 피아졸라풍 리듬의 힘과 폭발력을 느낄 수 있다. 곡은 이내 푸가로 이어지고 제2주제가 날카롭게 액센트를 주는 싱크레이션 리듬과 함께 등장한다. 제3주제는 서정적이고 느린 페이스로 진행되는데 고요한 성가풍의 분위기를 드러낸다. 제2주제와 제1주제로 돌아와 아치 형식을 이루고 떠들썩해지는 아첼레란도로 끝을 맺는다.

글 | 류태형(음악 칼럼니스트)

CREEDIA

“클래식 공연이라고 해서 딱딱한 분위기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거장 바이올리니스트인 다니엘 호프도  
보컬을 넣거나 미리 녹음된 반주를 틀며  
실험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네오클래식의 매력을  
느끼길 바랍니다.”



“베토벤과 모차르트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서  
더 좋은 발견도 하고 싶어요.  
장르의 벽을 두지 않고 힘이 닿는 데까지  
많은 도전을 해볼 겁니다. 많은 분들이  
클래식을 흥얼거릴 수 있게요.”







CREDIA

© YOYOJUNGSTUDIO

## 첼리스트 홍진호

## Jinho Hong, Cello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사를 졸업한 후 도독하여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석사 (Master) 및 최고연주자과정 (Meisterklassendiplom) 학위를 심사위원 만장일치 만점으로 (mit Auszeichnung) 졸업하였다. 섬세한 표현력과 풍부한 감성을 지닌 첼리스트 홍진호는 국내에서 서울대학교 SNUPO, 꿈의 오케스트라, 서울 솔리스트 첼로 앙상블,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서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제주 심포니 오케스트라, 아르츠 심포니 오케스트라, 순천만 국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였으며 해외에서는 독일 뷔르츠부르크 체임버 오케스트라, 뷔르츠부르크 음악대학 오케스트라, 독일 체임버 오케스트라 (MDR 라디오를 통해 독일 전역에 생중계), 불가리아 슈멘 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하여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한 육영재단 및 함부르크 Oscar Und Vera Ritter-Stiftung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 콩쿠르 1위, 독일 뷔르츠부르크 멘델스존 콩쿠르 1위, 프랑스 그랑프리 비르투오조 국제 콩쿠르 1위, 이탈리아 파도바 국제 콩쿠르 2위, 프랑스 보르도 국제 콩쿠르 특별상 (구 애비앙 콩쿠르), 중국 선펄트 국제 콩쿠르 특별상, 스위스 지오지아 베르가모 국제 콩쿠르 특별상을 수상하고 프랑스 이자크 국제 콩쿠르 세미 파이널리스트, 국내에서는 서울 클래식 음악 콩쿠르 대상, 서울 솔리스트 첼로앙상블 콩쿠르 대상, 성정 난파 콩쿠르 첼로 부문 대상, 서울 바로크 합주단 콩쿠르 1위 등 다수의 국내외 콩쿠르를 석권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2016년 예술의전당 독주회를 시작으로 2019년 금호아트홀, 금호아트홀 연세 독주회까지 모든 공연 연속 매진을 기록, 2019년 JTBC <슈퍼밴드> 오디션에서 우승하여 다양한 장르의 음악까지 저변을 넓히고 있으며, 월간 객석 2019년 화제의 인물로 선정되었다. 현재 이탈리아 Ferdinando Garimberti (in Milano 1954) 악기로 연주하고 있다.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

Sangji Koh,  
Bandoneon

반도네온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로서의 고상지는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네오니스트 료타 코마츠로부터 “고상지에게는 재능과 지성이 있다. 그녀는 아르헨티나 사람도 일본인도 그리고 유럽 사람들과도 다른 새로운 감성의 탱고를 아시아에서부터 발산해 나갈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았다. 김동률, 정재형 등의 앨범과 무대에서, 또 각종 음악 방송에서 존재감 넘치는 반도네온 연주를 선보여 오던 고상지는 2014년 9월, 9곡의 자작곡으로 모두 채운 첫 번째 정규앨범 [maycgre1.0]을 발매하며 탱고 작곡가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고상지가 탱고에 빠진 이유는 탱고가 어릴 적 즐겨 하던 게임 <드래곤 퀘스트>의 OST를 연상케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독특한 탱고의 입문 배경은 그녀만의 느낌을 전하는 ‘고상지 스타일의 탱고’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피아니스트  
이나우

Nau Lee,  
Piano

피아니스트 이나우는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교 예비학교 Julius Stern Institut와 예원학교, 서울예고를 졸업 후 한국예술종합학교, 뮌헨 국립음대, 뮌스터 국립음대에 입학하였으며, 일본 아시아 쇼팽 음악 콩쿠르 1위 등 다수의 콩쿠르에서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04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 챔버 뮤직홀 연주회를 시작으로 금호 영 아티스트 콘서트 피아노 독주회, 베를린 필하모닉 챔버 뮤직홀 연주회, 국제 피아노 콩쿠르 입상자 초청 연주회, Muenster Musik Festival 오케스트라와 협연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를 통해 찬찬하고 세심한 연주로 그만의 음악세계를 견고히 다져가고 있다. 2019년 오디션 프로그램 JTBC <슈퍼밴드>에 출연해 밴드 퍼플레인으로 TOP 3에 올랐다. 퍼플레인은 1st EP ‘작품번호 1번(Op. 01)’ 앨범을 발매했으며, 개인 활동과 더불어 퍼플레인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최근 JTBC <비긴어게인>에 출연해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어 호평받았다.



테너  
존노

John Noh,  
Tenor

바로크 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음악을 소화하는 테너 존노는 세계적인 오페라 전문 잡지 “Opera News”에서 “감미로운 테너”, “천부적인 테너”로 극찬을 받았다.

존노는 존스홉킨스 대학교 피바디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줄리어드 음악원 석사학위 장학 졸업과 동시에 카네기홀 솔리스트 데뷔, 예일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예일오페라 단원으로 활동 및 과정을 마쳤다.

오페라 가수로서 지난 5년 동안 20개 이상의 작품에서 주역을 맡았고 대표적으로 MetLiveArts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세계 초연한 <무라사키의 달>에 출연하여 오페라 유망주로 이름을 알렸다. 테너 솔리스트로서는 카네기홀 아이작 스텐 오디오토리엄 (Issac Stern Auditorium), 뉴욕 머킨홀, 뉴욕 링컨센터 앨리스틸리홀 등에서 세계적인 음악가들과의 협연과 연주로 활약했다.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지휘자 윌리엄 크리스티와 함께 <몬테베르디의 천재성> 을 노래했다.

그는 최근 인기리에 마친 JTBC <팬텀싱어3>에 참가하며 ‘천재 테너’ 로 불렸으며, 그가 소속된 팀 <라비던스>는 준우승을 차지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팬텀싱어 3>를 통해 존노는 클래식 음악을 기반으로 여러 장르의 음악을 훌륭히 소화하여 다양한 장르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피아니스트  
조영훈

Younghoon Cho,  
Piano

피아니스트 조영훈은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 졸업 시에는 실기 우수 학생으로 선정되어 조선일보 주최 제73회 신인 음악회에서 데뷔 연주를 가졌으며, 이후 한국과 헝가리의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리스트 페스티벌’의 제1회 한국 리스트 콩쿠르에서 1위로 입상하여 특전을 받아 헝가리 리스트 아카데미 장학생으로 발탁, 2년간의 석사과정을 헝가리 국영 라디오 클래식 프로그램 진행자이기도 한 Némethy Artila 교수를 사사하며 그의 다채로운 음악적 소양을 쌓았다.

영산아트홀, 영산그레이스홀, 이원문화센터, 모차르트홀, 세종문화회관 세종체임버홀,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 헝가리 리스트 뮤지엄 연주홀 등에서 리사이틀 및 독주 무대를 가졌다. 2006년에는 미국 뉴욕 헌터에서 열린 Amati Music Festival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뉴욕 Steinway Hall에서 독주 무대를 가졌으며 이는 뉴욕 클래식 라디오 채널 WQXR에 소개된 바 있다.

최근에는 밴드, 국악과 같은 다양한 음악 장르의 건반 세션과 앙상블 연주자로도 활동을 하며, 가요와 팝, 영화음악 등을 그만의 색으로 편곡 및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조영훈’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특히 하모니시스트 박종성과 듀오 활동을 활발히 하며 KBS 1FM ‘KBS 음악실’, KBS 1TV ‘더 콘서트’, MBC 라디오 ‘배철수의 음악캠프’, EBS 스페이스 공감 등에 출연했다.

박종화, 신수정, 이해진, 황윤하 교수를 사사하였으며, 현재는 한국 리스트협회(회장 황윤하) 총무로 협회 실무와 연주에 참여하고 있다. 2015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창단연주회를 가진 아즈 앙상블(AZ Ensemble)의 멤버로 매년 정기연주회 및 기획연주회로도 관객들을 찾아가는 중이다. 또한 밴드 폴리포닉 스케치(Polyphonic Sketch)의 멤버로서 작, 편곡 및 연주자로도 활동 중이다.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

DITTO Chamber Orchestra



PROFILE

프로필

2008년 조직된 디토 오케스트라는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축제 디토 페스티벌의 상주 오케스트라 및 안양문화재단과 서초문화재단의 상주단체를 역임한 바 있으며, DMZ 평화콘서트, 크레디아 파크 콘서트, 슬라슬라 페스티벌(라라랜드 인 콘서트) 등 국내 대형 클래식 공연의 주요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젊은 지휘자 정민과 아드리엘 김이 수석지휘자를 역임했으며, 악장과 단원들은 모두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뛰어난 실력을 지닌 젊은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다. 김대진(창원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이병욱, 최수열, 와드 스테어, 혼나 테즈지 등의 지휘자와 함께 했으며,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소프라노 조수미, 피아니스트 임동혁, 김정원, 바이올리니스트 고토 류, 신지아, 기타리스트 무라지 카오리 등 유수의 연주자들과 협연한 바 있다. 앞으로 패밀리 콘서트, 관객 개발 사업, 음악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선보이며, 보다 젊은 에너지를 선사할 것이다.

#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DONG HYEK LIM PIANO RECITAL

베 토 벤 에 게



슈만 어린이정경, Op.15 |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 14번 c#단조 Op.27 No.2 '월광' |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23번 f단조 Op.57 '열정' |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30번 E장조, Op.109

2020.11.6 FRI 8 PM 롯데콘서트홀

9.3 진해문화재단 | 10.14 용인포은아트홀 | 10.15 창녕문화예술회관 | 10.16 함안문화예술회관 | 10.20 경남문화예술회관

주최 CREDIA MUSIC & ARTISTS 티켓 R석 10만원 | S석 8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예매 Club BALCONY 1577-5266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LOTTE CONCERT HALL 1544-7744



Welcome to our new  
[www.ClubBALCONY.com](http://www.ClubBALCONY.com)  
September 2020

photo by Hyuckhoonmoon

한국 뮤지컬의 아이콘  
**CHARLOTTE**  
T H E A T E R

샤롯 데 씨 어 터



 **티켓 예매** 홈페이지를 통해 티켓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 정보**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연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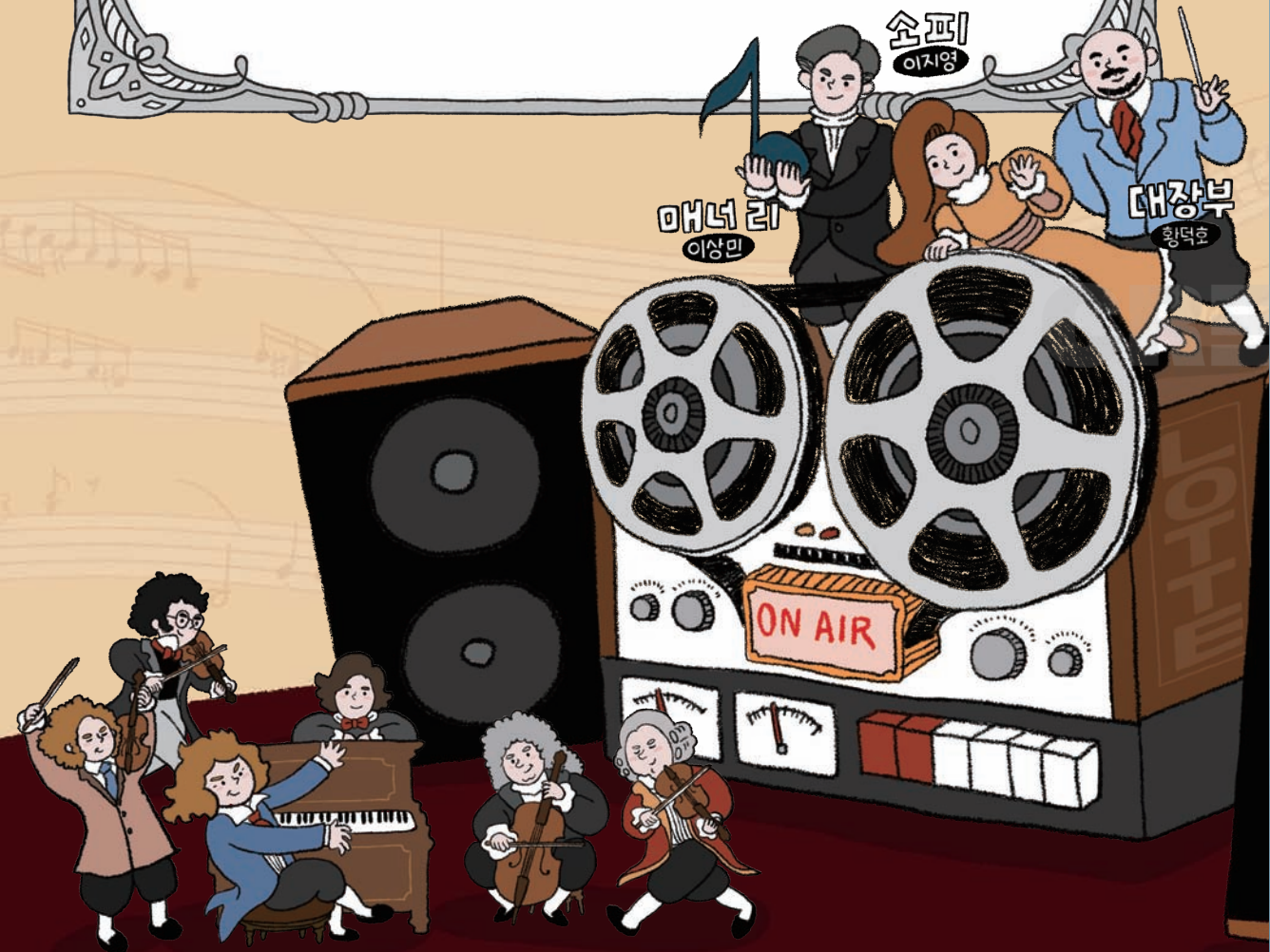
*beyond the best theater.*

여가문화를 책임지는 고품격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관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더 콘서트

# 숄숄클래식

클래식 No.1 왓캐스트 숄숄, 드디어 엘로티티이로!



9.12일(토) 가을, 그리움 | 12.5일(토)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  
오전 11시 30분 롯데콘서트홀

| 주최 | Club BALCONY | 기획 | DITTO Digital Odyssey

| 티켓 | 전석 3만원 | 예매 | Club BALCONY 1577-5266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 LOTTE CONCERT HALL 1544-7744



피부, 자정가를 바르다  
뮤테누토

2020  
썸머 브리즈  
홍진호

CREDIA



LOTTE CULTUREWORKS

CREDIA MUSIC & ARTISTS



CREDIA Music & Artists 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 Music & Artists 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 Music & Artists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크레디아 페이지([www.credia.co.kr](http://www.credia.co.kr))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REDIA Music & Artists

[www.credia.co.kr](http://www.credia.co.kr)